

화순 '텃밭경영' 영세농 돕는다

화순군이 영세농가의 '텃밭'에서 생산하는 소규모 농산물을 유통회사에서 수집해 전량 판매하는 '텃밭경영'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화순군은 올해부터 영세농가에서 생산하는 소규모 농산물을 화순 농특산물유통(주)에서 일괄 수집해 이를 책임지고 판매하는 '텃밭경영'으로 고령농, 영세농, 소규모 농업농 등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소득 증대를 꾀하는 '생활행정'을 적극 추진한다.

화순군은 올해 텃밭 267ha에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종자대나 퇴비 등 재료를 전액 지원하고, 경운비나 인건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텃밭경영의 대상 작목은 고추, 부추, 브로콜리, 토란, 고구마, 호박, 취나물, 두릅 등이다.

고추 등 농산물 유통회사서 수집 판매 노인 일거리 제공·소득 증대 '일석이조'

군은 읍·면 별로 2~3품목을 정해 텃밭경영 작목을 통일함으로써 경제성을 고려할 예정이다. 또 농가당 1천㎡이하로 제한하고 추진주체를 마을이장 중심으로 선정해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텃밭경영'의 주요 골자는 지역별 또는 마을별 향토 농산물의 생산계획을 마련해 종자, 경운, 퇴비 등 생산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 다품종 혹은 소량 텃밭 농산물을 일괄 수집해 대형 마트 또는 소비자 직거래 센터 등에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체계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게

된다. 이를 통해 군은 친서민 생활환경을 실천하고, 농촌지역 고령화 계층에게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세 농가들이 '텃밭'에서 작물을 생산하게 되면, 농산물 유통회사는 마을 일정 장소에 모인 물량을 전량 수집, 품위별로 차등매입해 화순을 전통시장에 마련된 농가 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한다.

다만 규격화가 요구되는 농산물은 롯데슈퍼 혹은 하나로 마트에 납품하고, 식품소재 공장과 연계해 제때에

판매를 완료할 예정이다. 화순군은 규모화, 전문화된 농업인에 비해 고령농, 영세농, 영세농 등은 농산물 유통·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텃밭이 점차 사라지거나 휴경지화돼 마을의 황폐화가 갈수록 심해짐에 따라 '텃밭경영'에 적극 나섰다.

특히 홀로 사는 많은 노인들이 일거리가 없어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까닭에 농촌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농촌노인 건강에 악영향이 초래되는 악순환이 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완준 화순군수는 "텃밭경영은 농촌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소득증대를 일시에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강진 중학생들 미 어학연수 가다

최근 해외 어학연수를 떠난 강진군 중학생들이 미국 워싱턴주 스노클미시 마운틴사이하이스쿨 학생들과 함께 정규 수업을 받고 있다. 강진 군민장학재단은 지난해 1월부터 '지역 명문학교 육성 및 우수학생 지역 학교보내기 사업' 일환으로 신개념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최고 해외 어학연수를 떠난 강진군 중학생들이 미국 워싱턴주 스노클미시 마운틴사이하이스쿨 학생들과 함께 정규 수업을 받고 있다. 강진 군민장학재단은 지난해 1월부터 '지역 명문학교 육성 및 우수학생 지역 학교보내기 사업' 일환으로 신개념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영암군 3년연속 '농촌마을개발' 선정

영암군 서호권역·신북 전담들권역 2015년까지 304억원 투입

영암군 서호권역·신북 전담들권역·학산권역이 전통·휴양 복합 체험 마을로 변모한다. 영암군은 지난 2008년 서호권역을 시작으로 2009년 신북 전담들권역, 지난해 덕진 용두래권역 등 3년연속 '농촌마을종합개발' 대상지로 선정됐다. 군은 오는 2015년까지 3개권역에 국·도비 포함 303억8천500만원의 농촌마을개발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마을 개발사업'은 농촌의 생태, 문화, 역사적 가치를 지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소득기반 확충과 기초생활환경개선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호권역'은 오는 2012년까지 47억원을 투입해 전통 테마거리 조성을 비롯해 수레장 쉼터정비, 커뮤니티센터, 달맞이공원, 산림욕체험장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북면 '전담들권역'은 오는 2013년까지 56억원을 투입해 복합문화센터와 장군바위 명소화, 곤충생태 체험시설, 냉천계 수변산책로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말 공모사업(사업비 55억)에 선정된 덕진면 전통마을 '용두래권역'은 월출산의 기(氣)로 뿜어 나오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자연마을로 도농교류, 생태관광 소득기반을 중심으로 추진하게 된다.

특히 용두래권역은 지역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3력(지력, 활력, 매력)충전'과 '5립(말립, 꺾림, 어울림, 드림, 내림) 만족'을 목표로 설정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전통문화와 자연생태 경관, 농촌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공간조성을 지원,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추진하는 농촌개발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이상휴기자 lsh@

오늘 강진서 떡산업발전협 창립총회

우리나라 떡산업 발전을 모색하는 모임체가 만들어진다.

(가칭) 한국떡산업개발 및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3일 오후 3시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강진군과 한국 전통떡사업자 후원으로 열리는 이날 행사는 목포대, 동신대 등 식품관련 교수와 음식·떡 기능장, 전통떡 사업자 등 7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의회 구성은 쌀을 이용한 건강기능성 떡개발 등을 통해 쌀에서 떡으로 식생활을 변화시키고 떡을 이용

한 쌀소비촉진과 농촌 고용인력 창출 등 떡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는 1부행사로 협의회 구성과 창립총회를 갖고 임원선출과 정관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2부에서는 '떡산업 발전방안' 주제 강연과 국제 전문가들의 토론회가 진행된다.

협의회는 앞으로 ▲떡 등 식품의 과학적 기능연구 ▲떡원료인 청정 농수산물의 생산체계 구축 ▲합리적 생산구조 개혁 ▲유통구조의 현대화 ▲떡홍보와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강진 무산김 '대박 예감'

'친환경' 인증... 전량 대도시 판매

강진만에서 생산된 지주식 무산(無酸) 김이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았다.

강진군은 "강진만에서 한창 채취하고 있는 지주식 무산 김이 최근 국립 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부터 '친환경' 무산 김 인증을 취득했다"고 2일 밝혔다.

국립 수산물품질검사원은 지난달 초부터 강진만의 지주식 무산김 양식장 616ha를 대상으로 산(酸) 처리 여부와 작황 조사 등 엄격한 심사를 실시했다.

관내 13여개가 참여하고 있는 무산 김은 현재 1속(1003)당 8천원~1만원에 팔리고 있으며, 완제품 출시와 동시에 전량 대형 유통업체 및 대도시 마트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강진 김양식 어민들은 친환경 지주식 무산 김의 밀집 피해예방을 위해 ha당 6책(冊·길이 40×폭 2.2m)으로 시설량을 제한, 지난해 4천100책보다 15% 줄인 3천300책을 시설했다.

또 친환경 무산 김 생산을 위해 산을 쓰지 않고 김에 자란 파래와 잡채 등을 일일이 손으로 솟아내고 노출수위를 수시로 조정해 8시간 이상 햇볕을 쬐고 자라도록 했다. 한편 강진 김양식 어업인들은 김 생산 종료시기인 오는 4월까지 800t(30만속)을 생산, 30여 어원의 어민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광산구, 월요일 야간 여권 발급 호평

광주시 광산구가 실시하는 '월요일 밤의 여권발급 서비스'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구는 여권 본인 직접신청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매주 월요일 밤 9시까지 여권 신청 및 교부장구를 연장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월요일 밤의 여권발급 서비스'로 신청과 교부가 이뤄진 건수는 모두 30건으로 수수료는 132만2천원에 달한다.

구는 올해 들어 주간에 처리된 여

권 업무건수 835건(수수료 3천639만여원)에 비해 낮지만, 제도가 널리 알려지면 직장인, 학생 등 시간에 쫓기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월요일 밤의 여권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시민 편의를 위해 월요일 야간 연장운영을 널리 알리는 한편 여권발급 수수료의 20%가 구 수입이 되는 만큼 더욱 편리한 여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기원태기자 wtkee@

새 얼굴

"혁신도시·영산강 사업 총력"

홍경섭 나주시 부시장



"최대 현안과제인 '빛가람 혁신도시' 건설과 영산강 수질개선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일 취임한 홍경섭(57) 나주시 부시장은 "호남농업 일반 지로서 확고한 자리매김과 문화관광산업 중흥, 기업유치를 통한 지방산단 활성화 등에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극성 출신인 홍 부시장은 전남

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지난 1976년 공직에 첫발을 내딛은 후 전남도 해양엑스포 유치담당, 전남도의회사무처 교육사회전문위원, 전남도 기획조정실 여수박람회지원관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순옥씨와 사이에 2남이 있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jung@

光州日報 전남중부취재본부

광산 강진 나주 담양 영암 장흥 장수 화순

본 부 장	김용기
기원태	국장
최승열	부장
이상휴	차장
정철현	기자
남철희	기자
정운수	기자
김윤호	기자
노정훈	기자

가볍고 편한하고 "새로운 곳"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산명부모의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 1.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에 안장하시겠습니까?
- 2.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에 안장하시겠습니까?
- 3.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에 안장하시겠습니까?

문의: 228-0108, 010-5103-4904, 010-7179-0108

"저희는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에 안장하시겠습니까?"

철거된 구조물 복원 및 연약지반 보강공법의 신개념!!

차세대 공법인 국내에서 개발한 지반소속색상법 전량공법

1. 지반조사
2. 시공방법
3. 시공효과

문의: 010-5103-4904